

제2절 울진의 종교 현황

1. 불교

불교는 삼국의 국가집권체제가 정비될 무렵인 4세기에 한반도에 소개되었다. 한반도에 소개된 불교는 중국을 통해서 들어왔다. 중국에서 불교는 2세기 말에서 3세기 초반에 비단길을 따라 유입되었다. 이후 불교는 중국 당나라 때까지 약 700년 동안 중국의 사상계를 장악하였다. 삼국의 경우 불교가 중국에 소개된 이후에 한화(漢化)된 불교가 소개되었다. 삼국이 처한 정치적 여건에 따라 불교가 소개된 데에는 시간의 차이가 있었다.

고구려의 경우는 372년(소수림왕 2)에 전진(前秦)의 승려 순도(順道)가 진나라 황제 부견(符堅)이 준 불상과 경문을 가져오면서 소개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로부터 2년 뒤, 진나라의 승려 아도(阿道)가 고구려에 오자 왕은 초문사(肖門寺)를 건립하여 승려 순도를 거쳐하게 하였고, 이불란사(伊弗蘭寺)를 건립하여 아도가 살도록 하였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것이 우리나라 최초의 불교 사찰이었다.

백제는 고구려와 비슷한 시기에 불교를 공인하였다. 시기는 384년 침류왕 때이다. 백제는 직접 중국의 선진 문물을 수용하고자 하였으나 북방을 장악하고 있는 고구려 때문에 육로로 중국과 교류하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백제로 중국 남조 국가들과 교류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처지에서 동진(東秦)의 효무제는 백제가 불교를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보이자 인도의 승려 마라난타(摩羅難陀)를 백제에 보냈다. 마라난타가 바다를 건너 한강을 거슬러오자 침류왕은 교외로 마중 나아가 맞이하고, 궁중으로 초대하였다. 침류왕은 다음해 한산에 절을 짓고 마라난타와 승려 10여 명을 거주하게 하면서, 불교를 공인하여 국교로 하였다.

신라는 삼국 가운데 가장 늦게 불교를 공인하였다. 527년(법흥왕 14) 때에 이차돈(異次頓)의 순교(殉教)를 계기로 불교를 공인하였다. 이에 앞서 신라에 불교가 전해진 것은 놀지왕 때이다. 고구려에서 가사를 입고 신라 땅으로 들어온 묵호자(墨胡子)가 불교를 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불교가 소개될 당시 삼국은 샤머니즘적인 신앙체계와 씨족공동체에 바탕을 두고 운영되고 있었다. 혈연을 중심으로 하여 운영되는 신앙과 사상은 정복전쟁으로 확대된 영토와 이민족을 효율적으로 지배할 수 없었다. 삼국은 정복전쟁으로 넓어진 영토와 급격하게 증가한 백성에 대한 통제력을 발할 수 있는 종교 체계가 필요하였다. 이러한 때에 전래된 불교는 고등 종교이자 철학으로서 국가의 영역 내에서 통용되던 잡다한 여러 부족의 신화(神話)와 무격 신앙(巫覡信仰)들을 포용하면서도 부족적인 전통을 계승할 수 있는 초부족적인 국가 정신의 확립에 기여하여 새로운 고대왕국의 정신적 기반을 마련하여 주었다.

신라는 6세기 이래 중국의 불교사상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였다.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기 전까지는 대승불교의 두 가지 흐름인 중관사상(中觀思想)과 유식(唯識)·여래장(如來藏)사상이 한반도 3국에 전래되었다. 당시 고구려와 백제에는 삼론학(三論學)이 발전하고, 신라에는 섭론학(攝論學)의 영향이 강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7세기 후반 이후, 신라에서는 양자를 포괄하는 새로운 사상체계가 등장하게 된다. 본래 사상계통을 달리하는 삼론학과 섭론학은 불교의 가르침에 대한 이해가 달라 적지 않는 논쟁을 벌이고 있었는데, 통일 직후 신라 불교계에서는 양자의 대립이 해소되고 양자를 포괄하는 사상이 등장한 것이다. 이는 통일 초 불교계를 대표하는 원효(元曉)와 의상(義相)의 사상에 두 사상을 통합하여 이해하려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으며 특히 원효의 화쟁(和諍)사상에는 두 사상의 이론을 수용하여 발전시키면서 양자의 갈등을 해소하는 모습이 잘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알 수 있다.

8세기 중반에 들어와 신라는 화엄종이 크게 대두되었다. 신라의 경우 통일 초에 활동한 의상이 중국에서 화엄종을 수용하였지만 원효와 신유식 사상이 주류를 이루던 8세기 전반까지의 불교계에서 그 영향력은 제한적이었다. 의상 자신이 수도인 경주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수행하였고, 그의 제자들도 경주와 같은 도시가 아닌 깊은 산속을 수행의 근거지로 삼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상의 화엄종은 왕실과 귀족들의 후원을 받으며 빠른 시기에 불교계의 중심적 흐름으로 등장하였다.

이와 같은 흐름에 맞추어 신라의 관할지역인 울진에도 불교가 전래되었다. 울진지역에 현존하는 최고의 불교사찰은 불영사이다. 불영사는 사적기에 따르면, 651년(선덕여왕 5)에 의상이 창건한 사찰로 기록되어 있으며, 지금까지 전해오는 구비에 의하면 대흥사·신흥사·대청사 등도 이 시기에 창건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리고 현재까지 확인된 이 지역의 불교 석조물 중 가장 빠른 시기의 유물은 신라 석탑의 전형이나 양식을 잘 계승한 9세기 후반의 청암사지 삼층석탑 1기뿐이다. 이에 울진지역의 불교 전래는 통일신라시대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또한 고려시대의 석조물이 대다수인 것으로 보아 이 지역에서의 사찰 창건이 고려시대에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며 동시에 이 지역의 불교도 고려시대에 가장 활발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석조물의 규모가 고려 중기 이후에는 오히려 작아지고 양식도 퇴보하는 것으로 보아 울진지역의 불교는 고려 전기에는 활발했으나 고려 중기 이후로는 약화된 것으로 추정된다. 고려후기의 성리학은 불교를 인륜과 도덕을 저버린 허무절멸(虛無寂滅)의 가르침이라 하여 이단으로 배척하고 유교를 전통으로 내세웠다.

1392년 조선이 건국하면서 내세운 승유억불 정책으로 삼국시대 이후 정신계와 신앙계에서 중심 위치를 누려오던 불교는 쇠락하고 오히려 민중신앙이 주류를 이루게 되었다. 이것은 울진지역에 산재하고 있는 폐사지에서도 알 수 있다.

또한 <표 132> 울진지역에 소재하는 불교 관련 사찰에 따르면 과거 울진지역의 깊은 산

곳곳에 있었던 암자들은 1968년 산중암자철거령, 1970년 새마을운동, 1979년 자연보호법 등으로 철거되었다. 이후 이들 암자 철거지를 중심으로 사찰이 창건되는 경우도 있었다.

<표 132> 울진지역에 소재하는 불교 관련 사찰

종단	시찰명	주소	대표자명	전체 교직자수	신도수	설립
조계종	동림사	울진읍 월변2길 14	여준	3	300	1952년, 신라대천사 탑
조계종	보광사	울진읍 토일1길 71-25	양정희	1	400	1931년
조계종	지장사	울진읍 명도2길 292	고형문	3	100	1994년
조계종	수진사	평해읍 오곡2길 330-78	종덕	1	200	신라 신문왕때, 임진왜란때 소실, 1969년 증수
조계종	선적사	평해읍 월송정로400-67	동화	1	260	1960년
조계종	월궁사	평해읍 월송길 59-34	현욱	1	200	1953년
조계종	신광사	북면 막덕구길 162-31	이정희	2	200	1994년
조계종	성조사	북면 부구리 1308-1	권영배	1	300	1994년 조선숙종때, 1979년 자연보호법 철거, 1984년
조계종	불성사	북면 막덕구길 134-14	조운용	1	50	
조계종	불영사	금강송면 불영사길 48	일운	30	3000	651년 의상
조계종	광흥사	온정면 원덕산길 392	일선	1	250	신라, 근대
조계종	백암사	기성면 황보1길 46-19	김진근	1	20	1990년
조계종	신흥사	울진군 박곡길 13-35	심순녀	1	25	
조계종	광도사	후포면 후포6길 14	김혜정	1	200	1952년
조계종	일출사	울진읍 공세향길 311	지홍	1	150	1980년대
조계종	성주암	북면 덕구온천로 370-8	한석자	1	30	암자로 무장공비 출현 철거, 1970년 재창건
조계종	용천사	울진읍 대흥신림로 613-26	법륜	2	600	암자 무장공비 출현 철거, 1994년 재창건
천태종	봉화사	울진읍 울진북로 491	김효성	1	300	1967년
천태종	옥정사	북면 고목1길 215	서창원	1	500	1954년
천태종	부국사	북면 상홍부1길 35	정자운	1	300	1967년
천태종	용화사	금강송면 왕피리 107	이동복	1	40	
천태종	해광사	근남면 망양정로 533-12	최병세	2	150	1995년
천태종	기성 포교당	기성면 척산리 338-2	박지문	1	40	1980년대
천태종	백문사	온정면 상소태길 8	윤동현	1	80	

종단	시찰명	주소	대표자명	전체 교직자수	신도수	설립
천태종	동해사	후포면 청구천길 2-9	김영계	1	30	
천태종	죽청사	죽변면 죽변7길 22-13	서일조	1	300	
태고종	장암사	평해읍 월송리 303-7	송교명	1	50	
태고종	신계사	울진군 왕피길 87	원경	1	100	1994년
태고종	영명사	기성면 기성로 912-24	원명	4	1,300	2003년
태고종	청명사	후포면 만산길 320	연공	1	100	2014년
원효종	천진사	금강송면 불영계곡로 2304-39	이종남	1	30	
원효종	흥륜사	북면 안말래길 277-12	김현기	1	10	1999년
삼론종	오봉사	울진군 온매로 1163-24	지재섭	1	60	1995년
정토종	산하 백암사	기성면 황보리 산 274	김진근	1	200	
천리교	동명교회	죽변면 죽변중앙로 125	조광자	1	15	
원불교	후포 선교도	후포면 청구천길 2-9	정개현	2	160	1981년
미타종	관음사	죽변면 봉황길 104	운월	1	100	1998년
자황종	자황사	근남면 상천전길 80	자승	1	300	
	수현사	평해읍 학곡5길 224	화덕	1	20	1985년

* 다소 내용이 변동이 있을 수 있음.

한편 <표 133> 울진지역에 소재하는 폐사지[절터]에 따르면 이들 폐사지에서는 많은 불교 유물들이 발굴되었다. 그 외에 아직 명칭이 확정되지 않은 사지들도 많이 분포하고 있다.

<표 133> 울진지역에 소재하는 폐사지(절터)

번호	사명	위치	비고
1	능허사지(傳)	울진읍 고성리	시대미상, 금폐
2	봉림사지(傳)	울진읍 읍남리 상토일	시대미상, 금폐, 축대, 와편
3	정림사지(傳)	울진읍 정림리 절골	신라, 주초석, 탑재, 기단석
4	대흥사지(傳)	울진읍 대흥리 본동	신라, 주초석, 와편, 대웅전 (동림사 이건 1963년)
5	신림리사지	울진읍 신림리 절골	시대미상, 금폐, 와편
6	진광사지(傳)	울진읍 읍내리	시대미상, 금폐
7	삼율리사지	평해읍 삼율리 절골	시대미상, 금폐
8	학곡리사지(가칭)	평해읍 학곡리 탑산골	시대미상, 금폐

번호	사명	위치	비교
9	성조암터(傳)	북면 주인리 면전동	조선, 금폐
10	장재사지(傳)	북면 주인리 면전동	고려, 삼층석탑, 석불좌상, 축대, 완편
11	옥정사지(傳)	북면 고목리 지장동	시대미상, 금폐
12	상당리사지(가칭)	북면 상당리 절골	시대미상, 금폐
13	봉전암터(傳)	북면 소곡리 절터골	시대미상, 금폐
14	소광리사지(가칭)	금강송면 소광리 절터골	시대미상, 금폐
15	쌍전리사지(가칭)	금강송면 쌍전리 통고산	시대미상, 금폐
16	전곡리사지(가칭)	금강송면 전곡리 절골	시대미상, 금폐
17	청암사지(傳)	근남면 구산리 탑평동	고려, 삼층석탑, 석등재, 주축석, 기단, 석렬
18	배잠사지(傳)	근남면 구산리 외성산동	고려, 당간지주, 석탑재, 완편
19	상류사지(傳)	근남면 구산리 성류산	신라, 석굴, 금폐
20	천량암터(傳)	근남면 행복리 천량산골	신라, 석굴, 금폐
21	대천사지(傳)	근남면 노음리 오로동	신라, 금폐, 삼층석탑(동림사 이건 1963)
22	검산사지(傳)	근남면 행곡리 검산중허리	시대미상, 금폐, 주초석, 완편
23	월출암터(傳)	근남면 행곡리 검산사서쪽	시대미상, 금폐
24	오봉사지(傳)	매화면 길곡리 오봉골	신라, 금폐, 주초석, 완편
25	광대사지(傳)	매화면 길곡리 광대골	고려, 금폐, 주초석, 장대석, 석탑부재, 오층석탑(40년전 경주박물관 이전)
26	신흥사지(傳)	매화면 덕신리 항곡동	신라, 금폐, 우릉, 완편
27	기양리사지(가칭)	매화면 기양리 절골	시대미상, 금폐
28	갈면리사지(가칭)	매화면 갈면리 절터골	시대미상, 금폐
29	이평리사지(가칭)	기성면 이평리 상심수절골	시대미상, 금폐, 완편
30	망양리사지(가칭)	기성면 망양리 현존산하	시대미상, 금폐
31	심수사지(傳)	온정면 온정리 다호천상	시대미상, 금폐
32	계조암터(傳)	온정면 소태리 단아동	시대미상, 금폐, 완편
33	선암사터(傳)	온전면 소태리 단아동	시대미상, 금폐
34	백암사지(傳)	온정면 소태리 백암산	시대미상, 금폐
35	덕정사지(傳)	죽변면 화성리 반정	고려, 금폐, 주초석, 완편
36	후포리사지(가칭)	후포면 후포리 절골	시대미상, 금폐
37	직산남산사지(가칭)	평해읍 직산리 탑산골	고려(추정), 석탑, 금폐

2. 유교

유교는 춘추전국시대 공자(孔子)가 요순삼대를 민본주의적 이상사회의 모델로 제시하면서 성립되었다. 공자는 기존질서가 붕괴되고 새로운 질서가 탄생하는 과도기적 시기를 천하무도(天下無道)로 파악하고 주대(周代)의 질서인 주례(周禮)의 회복을 희구하였다. 즉, 현실 문제의 해결을 사회·경제적 개선에서가 아니라 인간의 주관적·윤리적 측면에서 찾고자 했고 지식인 관료층인 사(士)에 의한 통치를 지향하여 군주의 도덕성 제고를 강조하였다. 군자는 지배하고 백성은 생산한다는 사회적 분업을 하늘이 부여한 자연질서로 파악하고 사회질서 재건을 위한 덕치(德治)를 주장하였다.

우리나라 유교의 전래는 삼국의 고대국가 성립시기에 학문적 측면에서 유학이 수용되었는데 고구려가 372년(소수림왕 2) 태학(太學)을 건립한 것이 본격적이다. 고구려는 중앙에는 태학을 세우고 지방 곳곳에 경당을 두어 청년들에게 유교경전과 궁술을 연마시키기도 했다. 백제는 『구당서』 백제전에 따르면 오경이 수입되어 널리 읽히고 오경박사를 두었으며 근초고왕 때에는 왕인 박사가 일본으로 『논어』와 『천자문』을 전수하여 한자와 유교사상을 널리 보급하였다. 이와 같이 백제는 유교사상의 장려가 국가적 차원에서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신라는 초기에는 경전의 문장을 차용하는 수준에서 시작되었으나 7세기 중반 당의 국학에 유학생을 파견하고 648년(진덕여왕 2)에는 국학을 설치하였다. 또 삼국을 통일한 신라는 확대된 영토의 운영원리로 유교에 주목하면서 682년(신문왕 2)에는 전문적 관료군의 양성을 위하여 국학의 교과를 강화하였다.

이는 화랑으로 추정되는 두 사람이 충도(忠道)의 실천을 서약한 맹세문을 새긴 금석문 「임신서기석」에 시경, 상서, 예기, 춘추 등 유교 경전을 3년 동안 차례로 공부하겠다고 맹약(盟約)한 부분에서 알 수 있다. 또한 「진홍왕순수비」에 “몸을 닦아 백성을 편안케 한다”는 논어의 구절을 인용하여 왕도정치와 충과 신을 장려하는 모습이나, 세속오계에 충과 효가 강조되어 있는 것을 보면, 신라는 국가체제와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기본사상으로 유교사상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였다.

신라, 고구려, 백제를 통하여 볼 때, 유교 사상은 이미 삼국시대에 오경사상을 중심으로 하여 정치이념이 되었으며 국민을 교육하는 원리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국가의 체제가 정비되어 감에 따라 그 기반을 확고히 할 뿐 아니라 국력을 신장하고 국가를 수호한다는 필요성에 의하여 유교적 사상원리인 충효의 의미가 강조되었음을 의미한다.

고려에 이르러 신라 말기의 난국을 타개하고 통일 국가를 형성한 태조 왕건은 건국의 대업이 불력(佛力)과 삼한산천의 도움으로 된 것이라 하여 불교를 장려하고 토속적인 신앙과 도교적인 풍수설을 승신하였다. 그러나 태조십훈요의 끝부분에 보이는 바와 같이 실제적인 통치이념은 유교사상에서 구하였다. 특히 건국 초기에는 한당유학풍(漢唐儒學風)으로 명경

(明經)보다는 제술(製述)을 중시하였으나 광종대에 이르러 유가(儒家)의 합리적·실제적 사고를 중시하면서 고대적 잔재를 청산하고 과거를 실시하여 유교경전에 관심을 쏟았다. 성종 대에 이르러 최승로는 유교의 정치이념화에 박차를 가하여 984년(성종 3) 12주에 경하각사를 두고 992년(성종 11)에는 국자감을 설치하여 고려유교의 기반을 다졌다. 또 관학(官學) 이외에 사학(私學)도 융성하였다.

그러나 고려 중기, 문벌귀족이 등장하면서 유학은 점차 사대(事大)와 보수(保守)의 성격을 띠면서 정치적인 한계성을 드러내어 격화된 사회모순을 해결할 능력을 상실하기 시작했다. 그 뒤 무신정권시대에 와서는 사회적인 면에서나 문화적인 면에서 유교 자체의 무능력을 반성하는 경향이 일어나기도 했으나 곧이어 몽고(蒙古)의 침략을 받으면서 사대성(事大性)과 파벌성(派閥性)만이 강화되어 오히려 사회모순을 더욱 격화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이후 고려 말에 지방의 중소지주층(中小地主層) 출신의 신흥사대부(新興士大夫)들이 대두하면서 불교뿐 아니라 전기의 유학 자체의 모순도 비판하는 성리학적 단계로 들어가게 되었다.

성리학은 불교의 선종사상(禪宗思想)을 유교적인 입장에서 받아들이고 이를 재구성하여 성립시킨 새로운 유교였다. 성리학의 특징은 인생(人生)과 우주(宇宙)의 근원을 형이상학적으로 해명하는 철학적인 면을 지니며 정치·사회적인 윤리도덕으로서 군신부자(君臣父子)의 의리(義理)를 강조하고, 정통(正統)과 대의명분(大義名分)을 강조하여 이단(異端)의 배척에 날카로운 면이 두드러졌다. 성리학은 충렬왕 때에 안珦(安珦)이 원나라로부터 신유학의 핵심인 주자성리학을 소개한 뒤, 이재현(李齊賢)·이색(李穡)·정몽주(鄭夢周)·길재(吉再) 등에 의해 과도기적인 단계를 거쳤다. 그러다 고려말에 와서는 정도전(鄭道傳)과 권근(權近) 등이 성리학에 입각하여 불교의 폐단뿐만 아니라 고려문화 전반을 비판하면서 그 개혁을 주장하였다. 이들 신흥사대부는 유교적 통치이념을 정신적 토대로 하여 조선왕조를 건국하게 된다.

조선왕조의 건국은 사회적으로도 혁명적 변화를 가져왔지만, 이에 수반하여 사상적으로도 큰 변화가 나타났다. 불교를 대신하여 유교, 특히 성리학이 지배적인 지위를 차지한 것이다. 조선초기 성리학은 관학(官學)으로 발전하였는데 주로 정치질서의 변혁과 관련되는 경제적(經世的)인 측면이 특징적으로 강조되었다. 그중 백성을 존중하는 민본사상(民本思想)이 그 핵심이다. 관학적 성리학이 국가건설 초기에 긍정적 기능을 수행하였다면, 15세기에 이르러 재야의 사림적(士林的) 성리학은 개인의 도덕수양과 향촌사회 안정에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16세기 중엽에는 성리학이 우주자연과 인간본성의 이치를 탐구하는 방향으로 발전하였다. 지역적으로도 기호(畿湖)·호남(湖南)지방에까지 확산되어 다양한 학파를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철학적 논쟁이 활발하게 일어나 대조적 성격을 지닌 두 개의 학파가 형성되었는데 이황을 중심으로 하는 영남학파와 이이를 중심으로 하는 기호학파가 그것이다. 이들의 학풍을 따르는 학인들이 남인(南人)과 서인(西人)이다. 이후 사립간에 분열양상

은 사립정치가 확립된 선조 대에 뚜렷한 당파를 형성하면서 경쟁하는 양태로 변하여 붕당정치로 이어졌다.

조선후기에는 성리학 자체 내에서 주기사상(主氣思想)과 주리사상(主理思想)의 논쟁이 벌어지는 한편 성리학에 대한 반발이 양명학으로 나타났고, 유교의 진수를 다시 추구하는 열의 속에 실학사상(實學思想)이 싹트게 된다.

실학은 17세기 전후의 경세치용파(經世致用派), 18세기 중엽 전후의 이용후생파(利用厚生派), 그리고 19세기 초기를 전후한 실사구시파(實事求是派)의 활동을 통해 많은 학문적 성과와 사회제도의 개혁을 초래하였으며 외래문화와의 충돌과 습합과정을 거쳐 조선 후기 사회의 사상적 주류를 형성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또한 실학은 농경제 사회의 재편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으며 구한말 일본을 비롯한 외세의 침입에 대항하는 위정척사론(爲政斥邪論)으로 의병활동의 정신적 토대로 뿌리내리게 된다.

울진지역의 유교는 1357년(공민왕 5)에 평해향교(平海鄉校)를 창건하여 현유(賢儒)의 위패를 봉안하여 배향하고 지방민의 교육과 교화를 담당하였다. 평해향교는 경북지역 39개 향교 중 창건 연도가 기록된 향교 가운데 영해향교[충목왕 2년, 1346] 다음으로 오래된 향교이다. 조선시대에 들어오면서 1484년(성종 15)에 울진향교(蔚珍鄉校)가 창건되었으며, 1574년(선조 7)에 당시 울진현령 정구수가 향인과 더불어 남사고(南師古)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옥동서원(玉洞書院)을 창건하였고 1628년(인조 6)에는 만후 임유후를 추모하는 고산서원(孤山書院)을 비롯하여 1671년(현종 12)에 황응청(黃應清)과 황여일(黃汝一)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명계서원(明溪書院)을 창건하는 등 재지서원이 설립되면서 울진 유교의 발흥기를 이루었다. 이 사실은 <표 134>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울진지역에는 총 18곳에 25점이 전해지며 주로 효자비가 대부분이다.

<표 134> 울진지역에 소재하는 열녀·효자각

번호	비명	위치
1	장서린 효자각	울진읍 고성리 370-1
2	노월달 효자비	울진읍 명도리 산 86
3	장동유 효자각	울진읍 고성리 375
4	전택오 효자각	울진읍 호월리 산 142
5	주경안 효자각	울진읍 고성리 370-1
6	이윤 효자각	평해읍 월송리 산 49
7	전병모·술모 효자각	평해읍 월송리 431-2
8	황연 효자각	평해읍 오곡리 산 24

번호	비명	위치
9	대해 횡옹청 효자작	기성면 정명리
10	남양홍씨 열녀각	기성면 삼산리 산 72
11	영양남씨 효열각	기성면 정명리 산 26
13	효자 백형원	기성면 이평리 심수동
14	심천범 효자각	북면 두천리
15	남양홍씨 효자각	북면 부구리 산 638
16	달성서씨 열녀각	북면 부구리 산 638
18	김석하 효자각	북면 덕구리 76-2
19	울진장씨 열녀각	죽변면 화성리 67-1
20	이가동 효자각	매화면 신흥리 산 67-1
21	남양전씨 열녀각	매화면 금매리 산 7
22	박한명 효자각	온정면 덕산리 698
23	영해박씨·조낭자 열효각	온정면 덕인리 산 65
24	주명기 효자각	근남면 행곡리 672
25	김재희 정효각	서면 왕피리 641

3. 천주교

16세기 유럽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던 시기에 가톨릭교회, 즉 천주교회는 반종교개혁운동의 일환으로 해외선교에 매진하여 예수회를 중심으로 동양에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며 동양선교를 추진했다. 인도를 거점으로 한 이들 선교사는 1549년(명종 4) 일본에 도착하였고 1583년에 중국 본토에 진출하였다. 그 결과 16세기 말에서 17세기 초까지 중국과 일본에 천주교회가 크게 성행하였다. 당시 우리나라는 중국, 일본과 지정학적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천주교회를 수용하게 되었다.

일본은 16세기 중엽 오다 노부나가[織田信長]에 의해 전국이 통일되었다. 오다의 뒤를 이은 토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는 강력한 통일국가를 지향하는 한편 내부적인 불안 요인들을 극복하기 위해 침략전쟁을 일으켰는데 이것이 임진왜란이다.

조선 침략의 선봉장 중 한 사람인 고니시 유키나가[小西行長]는 서울을 함락시키고 평양까지 점령하였으나 조선 의병들의 저항을 받아 후퇴하게 되었는데 경상도 응천(熊川)을 거점으로 삼아 교두보를 확보하고 예수회 신부들에게 종군 사제를 한 사람 보내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예수회 일본 부관구장 고메스(P. Gomez) 신부는 세스페데스(Gregorio de Cespedes) 신부와 후칸 에이온 수사를 조선에 파송했다.

1594년(선조 27) 초 최초로 세스페데스 신부가 우리나라 땅에 발을 디뎠다. 그는 응천을 중심으로 일본군 진지를 순방하며 성사(聖事)를 진행하였으나 본국의 사정으로 1595년 4월 경 조선을 떠나 일본으로 귀환하였다. 그가 조선에 머문 1년 동안의 활동은 침략군인 일본군에 한한 것이었으나 임진왜란 중에 일본에 끌려간 수만 명의 조선인 포로 중에 적어도 7천 명 가량이 천주교인으로 개종하였으며 토요토미·도쿠가와 박해 당시 상당수 조선인 천주교인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 순교하였다.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조선사회는 많은 모순을 드러내며 변화의 과정을 겪게 되는데 이러한 역사적 상황 속에서 중국을 통해 한역서학서(漢譯西學書)와 서양과학기물들이 국내에 유입되었다. 이러한 서학 관계 서적과 기물들은 새로운 학문에 대한 욕구를 지니고 있던 현실 비판 성향의 학자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가져다 주었다. 그리하여 18세기 중엽부터 조선 학자들 가운데는 서학을 본격적으로 연구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서학파(西學派)라는 새로운 학풍이 조성되었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이익(李灝)이다. 실용적(實用的) 학문으로서의 새로운 경학(經學) 탐구에 몰두하던 이익은 중국으로부터 유입된 다양한 한역서학서들을 폭넓게 탐독하기 시작했다. 이같은 이익의 서학 연구는 그의 제자·문하생들에게 확산되어 ‘조선 서학’이란 학문적 체계를 수립하며 조선 후기 실학(實學) 형성에 중요한 줄기가 된다. 특히 홍대용을 비롯한 북학파들은 서양과학과 기술을 적극 도입하여 “부국유민(富國裕民)을 위한 이용후생(利用厚生)에 기여” 하도록 촉구하였다.

서학파·북학파로 구별되는 서학연구의 봄이 무르익어갈 무렵 서학의 사상적 근거로 등장한 서교, 즉 천주교까지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실천하려는 모험적인 학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이익의 호를 따 이름 붙여진 ‘서호학파’(星湖學派) 일각에서 그러한 움직임이 일어났는데 이들은 기호(畿湖)지방의 남인계(南人系) 학자들이었다.

최초로 천주교가 요구하는 종교적 계율을 실천에 옮긴 인물은 이벽의 제자였던 홍유한(洪儒漢)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777년(정조 1)에는 권철신·정약전이 주도한 교리연구회가 열렸는데 그들은 이 모임 후에 아침저녁 기도, 주일(主日)의 노동 금지, 금육재(禁肉齋) 등 천주교에서 요구하는 신앙을 실천하였다. 특히 1779년 겨울, 주어사에서 모인 강학회에 참석한 이벽·정약전·권상학·이종억 등은 적극적으로 신앙실천을 추구하였다.

1783년(정조 9) 이승훈은 북경의 북천주당을 찾아 프랑스인 신부를 만나고 천주교 서적을 얻어 와 열심히 읽고 또 신부의 가르침도 받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이승훈은 입교할 결심을 하기에 이르렀고 부친의 동의를 얻어 마침내 그라몽(J. J. de Grammont) 신부에게 ‘베드로’란 영세명으로 세례를 받았다. 세례 받은 이승훈은 북경에서 많은 책과 십자고상(十字苦像)과 상본[像本, 성화] 등 천주교 성물을 선물로 받아 가지고 1784년 봄 서울로 돌아왔다. 이때 이승훈으로부터 천주교 서적을 받고 탐독한 이벽은 천주교에 대한 보다 확고한 신앙을

갖게 되면서 천주교 전파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이승훈이 세례를 받고 돌아온 지 불과 1년도 못되어 서울과 경기도 마재·양근·포천 지방, 충청도 내포·예산 지방, 전라도 전주·진산 지방에 천주교 신앙이 확산되었다. 이로 인하여 자생적(自生的)인 신앙공동체가 형성되었고 천주교 신자수도 1천 명에 이르렀다.

1785년(정조 9) 봄에 형조의 금리(禁吏)들이 우연히 명례방(明禮坊)[명동] 김범우의 집을 지나다가 이상한 집회가 열리는 것을 보게 되었다. 금리는 천주교 서적과 화상들을 보고 그것을 압수하여 형조에 갖다 바쳤다. 당시 형조판서 김화진(金華鎮)은 집주인인 중인(中人) 김범우만 체포하였다. 이것이 소위 을사추조적발사건(乙巳秋曹摘發事件)으로 천주교인의 실체가 정부 기관에 의해 최초로 발각된 사건이었다.

1785년 3월에 태학생(太學生) 이용서(李龍敍), 정숙(鄭淑) 등이 사학(邪學)을 엄하게 배척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통문(通文)을 내었는데, 이것이 유림에서 나온 최초의 천주교 배격문으로 기록되고 있다. 천주학을 사학으로 규정하고 천주교를 엄금할 것과 서학관계 서적을 불살라 없애기를 요구하는 상소가 계속되자 마침내 정조(正祖)는 집안에 비장된 서학서들을 모두 불에 태우거나 물에 던져 버리고 북경으로부터의 서학서 수입을 엄중 단속하게 하였다.

이와 같은 분위기 속에 1791년(정조 15) 전라도 진산에서 천주교인 윤지충·권상연(權尙然)이 체포되어 처형당한 진산사건[珍山事件 혹은 신해박해]이 일어났는데 이는 조선 천주교회로서는 처음으로 맞은 대규모 박해였다. 신해박해로 천주교는 단순한 학문의 대상이 아니라 신앙으로 여겨졌으며 따라서 전통 유교와는 다른 종교로 인식되어 종교적, 정치적 탄압의 대상이 되었다.

특히 주문모 신부는 서울에 잠입하여 여자 교인 강완숙(姜完淑)의 집에 숨어 있으면서 이후 6년 동안 은밀하게 조선 천주교회를 지도했는데 이로 인해 조선 천주교회에는 여성 교인들이 증가하는 새로운 양상을 보이게 되었다. 강완숙의 활약으로 왕족에게까지 신앙이 전파되었는데 은언군(恩彦君) 부인 송(宋)씨와 그 며느리 신(申)씨가 입교하여 세례를 받았으며 뿐만 아니라 양반집 부녀자들과 궁 안의 궁녀들도 여럿 입교하였다. 주문모 신부의 입국으로 천주교인은 1만여 명에 이르렀다.

천주교에 대한 큰 박해사건은 조선후기 정파적 분쟁 등 정치권의 변동과도 깊이 관련되어 있다. 정조가 재위할 당시에는 대부분의 천주교 관련 양반들과 같은 정치적 파벌인 남인 시파를 옹호하는 채제공이 정권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큰 박해는 없었으나 1795년(정조 19)에 윤유일·최인길·지황의 순교와 그에 따른 천주교인 체포사건이 있었고 1798~9년 사이에 경기도·충청도 등지에서 교인 체포사건들이 있었다.

1800년 정조의 국장이 끝나고 11세의 순조가 즉위하자 순조의 증조모이자 영조의 계비 정순왕후가 수렴청정하게 되었다. 정순왕후 김씨는 벽파의 우두머리였다가 정조 때 전라도로 귀양 가서 죽은 김구주(金龜柱)의 누이동생이었다. 그는 시파에 속하는 고관들을 파직하

고 대신 자기 오빠인 김관주(金觀柱)를 비롯하여 노론 벽파 인물들을 요직에 앉혔다. 이때 목만중·홍낙안·이기경 등 남인 백파에 속한 인물들도 계속 천주교 박멸을 요구하는 상소를 올리고 있었다.

정순왕후는 마침내 1801년(순조 1) 오가작통의 법을 만들어 사학(邪學)을 따르는 자가 있으면 그 감시를 맡은 통수(統首)는 수령에게 보고하라는 교서(敎書)를 반포하였다. 이 교서 반포에 따라 전국에 걸쳐 천주교인 체포가 실시되었다. 처음엔 중인계층 이하의 교인들이 체포되다가 점차 상류 양반계층 교인들도 체포되었다. 교서가 반포된 지 9일 만에 명도회장 정약종이 천주교 관계 서적과 성물(聖物)들을 숨기려고 옮기다가 발각되는 바람에 주문모 신부의 활약상은 물론 천주교인들의 실상이 폭로되고 말았다. 양반 계층 교인들의 천주교 관련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백파의 처벌 요구는 더욱 가열되어 2월에 접어들면서 마침내 이가환·정약용·이승훈·홍낙민·권철신·홍교만·정약종 등이 체포되었다.

이들 중 정약종·이승훈·홍낙민·최창현·홍교만·최필공 등 6명이 서소문 밖에서 참수되었고 이가환·권철신은 옥사했으며 정약용·정약전은 배교하고 유배당했다. 박해는 지방으로도 확산되었으며, 주문모 신부도 체포되어 그 동안의 행적이 소상히 밝혀지게 되었다. 이에 은언군의 부인과 며느리가 교인이 되었다는 것과 궁 안에도 상당수의 교인이 있다는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으며 강완숙을 비롯한 여자 교인들도 발각되고 말았다. 그 결과 강화에 유배 중이던 은언군이 사사되었고 그의 부인 송씨와 며느리 신씨도 사약을 받았다. 주문모 신부는 군문효수(軍門梟首) 되었고 그를 숨겨주거나 도움을 준 교인들도 처형당했다. 이 박해를 천주교에서는 신유박해라고 하고 일반 역사에서는 신유사옥이라고 한다. 이때 희생된 천주교인의 수는 3백 명이 넘는다.

천주교회는 신유박해를 겪은 후 한동안 침체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목숨을 건진 교인들은 숨어 살거나 고향을 떠나야 했다. 이들은 재난을 당한 교인 가족을 돌보고 그런 가족들끼리 모여 공동생활을 꾸려 나갔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신앙공동체가 재조직되었고 나아가 신자촌(信者村)이 형성되었다.

1) 울진본당

울진지역의 천주교 전래도 신유박해와 무관치 않다. 1801년 신유박해 때 충청도에서 피난 온 김강이, 김타대오 형제가 영양 수비 머루산 신자촌에 살다가 울진 왕피리 갈전으로 이사 오면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나 김강이는 1815년 을해박해 때 포졸들에게 체포되어 원주 감영에서 처형되었으며 김 타대오는 전라도로 귀양을 갔다. 이후 봉화의 곰직이 신자촌과 우련밭 및 곧은정 신자촌에서 박해를 피해 울진지역으로 이주하였다.

1957년 5월 당시 춘천대목구장 구인란 주교의 인준으로 삼척본당 소속의 울진공소가 설립되어 1958년 5월 24일에 울진공소는 본당으로 승격되었다. 본당주보 성인은 '성 요셉'이다.

그 후 성당 건물을 신축하여 아일랜드의 성 골롬바노전교회 소속인 정 레오 신부가 초대 본당신부로 부임하게 되었다. 1965년 울진성당은 원주교구가 설정되면서 원주교구 소속이었다가 1969년 안동교구 설정과 함께 안동교구로 편입되었다.

울진성당은 1958년 본당설정 다음부터 죽변공소, 기성공소[1970년경 폐지], 평해공소[1970년경 폐지], 매화공소[1990년 폐지], 서면공소, 후포공소를 설립하였다.

역대 주임신부는 1대 정 레오(Leo Clarke), 2대 전 야고보(James Murphy), 3대 오 미카엘(Michael Toughlin), 4대 엄 제랄드(Gerald Ellis), 5대 노세현(마티아), 6대 최동호(아타나시오), 7대 나도성(Durald), 8대 배세영(Perisse Marcell), 9대 조창래(빈첸시오), 10대 허진섭(Fuevrier Louis), 11대 도광주(Bideau Jean), 12대 정희완(사도요한), 13대 정일(가브리엘), 14대 이상복(비오), 15대 권중희(베드로), 16대 이영길(가를로), 17대 김한모(바오로), 18대 정상업(바오로), 19대 안상기(미카엘), 20대 김원현(베드로, 현재)이다.

주요 사업은 1960년 미국 가톨릭 구제회 한국지부의 도움[소액분 10톤]으로 화재로 집을 잃은 약 5백 명의 이재민에게 구제 활동을 실시하였다. 1961년에는 후포공소 설립을 위해 현 후포본당 자리를 매입하여 건축하고 축성식을 거행하였다. 1970년에는 울진본당 ‘해성친목회’ 회원의 건의로 배에서 굿을 비롯한 어떠한 미신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서약하고 해성1호를 건조하였다. 이후 1978년에는 해성친목회가 65톤급 철선 ‘해성3호’를 건조하여 충무항에서 진수식을 거행하였다.

1980년에는 본당 최초의 뾰레시디움 ‘인류의 모후’가 설립되었다. 그리고 1980년에는 본당 주보인 「가톨릭 울진」이 발행되었고, 1981년 후포신용협동조합을 창립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1989년부터 ‘한마음 한 몸 운동’을 전개하여 현혈에 동참하고 있다[3년간 315명 참여]. 1991년 울진군 후포공소를 본당으로 승격하였으며, 같은 해 울진성당 신자들을 중심으로 핵 폐기장 설치 반대운동을 전개하였다. 1997년에는 꾸리아 야외 행사 및 자연보호 활동을 실시하였다.

2011년에는 지역사회 복지사업을 위해 ‘나눔의 집’을 개소하여 불우 독거노인 40여 세대에 반찬 나눔 행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울진본당 60년사』편찬과 본당 설정 60주년 행사를 가졌다.

울진본당의 관할지역은 울진읍·죽변면·금강송면·근남면·매화면 등이다. 주임신부는 김원현(베드로)이며, 신자 수는 1,645명이다. 울진본당을 운영하고 있는 단체로는 사목회·성가대·주일학교·성소후원회·성모회·빈첸치오·꾸리아·성체조배회·제대회·연령회 등이 있다. 울진본당 소재지는 경북 울진군 울진읍 읍내10길 7에 있다.

현재 관할 공소로는 죽변공소와 서면공소가 있다. 울진성당에서는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죽변공소에서는 목요일과 일요일, 서면공소에서는 매달 둘째 주일에 미사가 열린다.

(1) 죽변공소

울진군 죽변면 지역의 천주교 전래는 1955년 경 강원도 강릉에서 이사 온 레지나의 자택에서 문 유스티나, 김 데레사 세 자매가 모여 삼척성당 신부를 모시고 첫 미사를 드린 것이 시작이었다. 다음 해 춘천교구 삼척본당 소속 죽변 임시공소로 지정을 받았으며 1958년에 죽변공소가 설립되었다. 죽변공소는 1965년 춘천교구에서 원주교구 산하로, 1969년에는 다시 안동교구로 소속이 변경되었다. 그 후 1988년 4월 25일 공소 신축 축복식을 가졌다.

죽변 공소 소재지는 경북 울진군 죽변면 죽변중앙로 151-3이며, 관할지역은 죽변면 전지역이다. 공소회장은 서영진(사도요한)이며, 신자수는 100명이다.

(2) 서면공소

울진군 서면 지역의 천주교 전래는 1959년 11월 경 경기도 안성에서 수원교구 신자인 최목수가 부모와 가족들과 함께 서면 삼근리의 빈집에 이사를 오면서 시작되었다. 하루는 마을에 사는 백중소가 최목수의 집에서 들려오는 기도 소리와 망가 소리를 듣고 그 집을 찾아가서 최목수로부터 천주교 복음을 들은 후 이웃사람들과 함께 최목수의 집에서 첫 기도모임을 시작하였다. 이후 사람들의 수가 불어나 최목수의 집이 협소하자 1962년 이들이 손수 나무를 베어 작은 공소를 짓게 되었다. 그러나 공소의 부지가 마을 공동재산이었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철거를 요구해 백중소가 예비 신자들과 뜻을 모아 자신의 땅에 공소 신축공사를 시작하여 1964년 10월에 완공하였다. 1965년 4월 1일 처음으로 신자 87명이 원주교구 콜롬반회 신부에게 세례를 받았고 신자수 100여 명의 신자촌을 형성하였다.

서면공소는 울진본당 설립 이후 춘천교구, 원주교구, 안동교구로 재편성되었으며 지금은 공소회장 이창구(사도요한)가 담당하고 있다. 신자 수는 25명으로 겨우 공소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으며, 서면공소 소재지는 경북 울진군 금강송면 불영계곡로 1339이다.

2) 후포본당

후포본당은 1961년 3월 울진군 후포 삼율리가 연고지인 울진세무서 직원 김홍재가 후포에 공소설립을 계획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울진본당 전 야고보 신부와 상의하여 춘천교구장의 도움을 받아 본당 대지를 매입하였다. 같은 해 7월 후포공소 건축을 완공과하여 축성식을 거행하고 7월 1일 원주교구 울진본당 후포공소로 시작하였다. 이후 안동교구 울진본당 후포공소에 소속되었고 1991년 7월 5일 본당 소속이던 후포공소가 본당으로 승격되었다.

후포본당의 관할지역은 후포면, 평해면 등이다. 주임신부는 차호철(사도요한)이며, 신자 수는 100여 명이다. 후포본당 소재지는 경북 울진군 후포면 후포로 8-2에 있다.

3) 죽면본당

죽면본당은 1992년 북면공소 건립위원회가 발족되어 울진군 북면 부구리에 대지 2,450평을 매입하여 1998년 5월 4일 축성식을 갖고 죽면공소로 시작하였다. 2005년 4월 24일 본당으로 승격되었으며 초대 주임신부로 이기정(사도요한)이 부임하였다. 역대 주임 신부는 1대 이기정(사도요한), 2대 안영배(사도요한), 3대 조인래(미카엘), 4대 김기환(요셉), 5대 정희욱(대건 안드레아), 6대 사공균(알로이시오), 7대 김도겸(아론, 현재)이다

주요 사업은 2001년 11월 24일 청소년 쉼터(구 교육관)를 개관하였으며, 2002년 4월 28일 “성가정의 어머니” 꾸리아를 창단하여 활동하고 있다. 북면본당의 관할구역은 북면 전 지역이며, 주임신부는 김도겸(알로이시오)이고, 신자 수는 100여 명이다. 북면본당 소재지는 경북 울진군 북면 울진북로 2133에 있다.

4. 민족종교

1) 천도교(天道教)

19세기 말 민족종교가 봇물 터지듯 창시된 것은 우선 한말이란 상황이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위태로운 시기로 서구의 열강과 일본이 엄청난 기술 문명을 앞세워 제국주의의 욕심으로 한국을 식민지로 만들고자 열을 올리던 때였기 때문이다. 이때 최소한 정신적인 측면에서 나마 주체성을 찾으려는 시도가 민족종교로서의 신종교였던 것이다.

동학은 1864년 경주 유생 최제우(崔濟愚)에 의해 창도되었다. 동학이 창도될 무렵인 1862년에는 삼정문란이 극심해 농민층의 몰락이 가속화되면서 전국 각 지역에서 농민항쟁이 폭발하였다. 지배층은 이를 개혁할 의지나 방도를 갖지 못했고, 그들이 신봉했던 성리학 또한 조선사회의 지배이념으로서의 생명력을 급속히 상실해 갔다. 또한 이 시기에는 서구 열강들이 앞다투어 동아시아를 침략하였으며 조선도 예외가 아니었다.

이러한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민심은 크게 동요하였다. 동학은 이러한 상황에서 인간을 구현하고 사회적·민족적 모순을 해결하는 사상으로 창도되었다. 동학은 성(誠)·경(敬)·신(信)의 덕을 잘 닦아, 인간 본연의 마음을 지키고 바르게 행동하여 하늘의 이치를 공경하고 따르는 삶을 성취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았다. 동학은 이와 같은 수행을 통해 질병과 고통에서 벗어나 모두가 평등하고 조화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으며, 당대의 사회적인 모순이나 외세의 침략도 해결하고 막아낼 수 있다고 보았다. 동학은 수행을 통해 인간의 심성을 개발하고 진보시켰고, 동시에 유무상자(有無相資)하고 평등하게 살아가는 생활공동체를 형성하도록 이끌었다.

이같이 동학이 평등을 설파하며 빠르게 확산되자, 위기의식을 느낀 경상도의 보수 유생들은 유력한 서원을 중심으로 통문(通文)을 들려 동학을 금압하라는 상소를 올렸고, 조정은

동학을 ‘혹세무민’(惑世誣民)하는 이단으로 치부하여 최제우를 체포한 뒤 처형하고 동학교도들에 대해서도 탄압을 가했다. 최제우가 처형된 이후 동학의 맥을 이어간 것은 2대 교주 최시형(崔時亨)이었다. 그는 탄압을 피해 비밀리에 포교활동을 계속하였고, 동학의 경전인 『동경대전』, 『용담유사』를 간행하고, 포접제로 동학교도를 조직화하여 교세를 확장시켜 나갔다. 이에 동학교단은 조정을 상대로 동학의 공인을 요구하는 교조신원운동(教祖伸冤運動)을 전개하였다. 교조의 신원운동은 척양척왜(斥洋斥倭)의 기치 아래 반봉건, 반외세의 동학농민전쟁을 전개하였다. 이후 3대 교주인 손병희(孫秉熙)가 동학의 교명을 천도교(天道教)로 바꾼 후 오늘에 이른다.

울진지역의 동학과 관련된 기록은 울진군 기성면 방율리에 당시 동학 접주로 활동한 전의철(全義哲) 장군에 대한 기록과 전설이 있다. 울진지역에서 동학에 가담한 사람은 전의철이 유일한데 울진군 기성면 방율리에 ‘전의철 의관묘’가 전해지고 이 사실을 기록한 ‘동학 접주 전의철비’가 있다.

울진군지에 따르면 전의철은 3년간 최제우와 함께 동학운동을 전개하다가 향리인 기성면 방율리로 돌아와 자기 집에 철공을 숨겨두고 무기 등을 제작하면서 1871년(고종 8) 동학교도 500여 명을 규합하여 평해 관아를 공격하여 평해군수를 사로잡았다. 또 영해지방의 동학접주인 이제발(李濟發)과 남칠서(南七瑞)가 이끄는 군(軍)과 합류하여 영해부를 공격해 부사인 이정(李政)을 살해하고 관아를 점령한 후 탐관오리를 처벌하였다. 이후 그는 충북 단양에서 은둔하며 재기를 꾀하다가 1871년 6월 3일 대구에서 처형되었다.

전의철 이후 울진지역에서 천도교의 활동은 2대 교주 최시형의 은둔 생활과정 중에서 종종 언급된다. 초대 교주 최제우가 사형된 후 최시형은 관의 추적을 피하고자 깊은 산속으로 숨어들었고, 이를 중심으로 포교 활동을 하였다. 그는 태백산과 안동, 울진(죽변) 등지를 전전하며 지냈다. 특히 최시형이 울진(죽변)지역으로 피신한 이유는 이 지역에는 동학교도들이 많아 경제적 뒷받침이 가능하였으며 무엇보다도 경주나 대구로부터 멀리 떨어진 해안가여서 관의 지목을 피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이곳에 은둔하는 동안 검곡(劍谷, 검등골) 등을 순회하며 동학의 가르침을 전하였다. 그 결과로 영해·영덕·영양·상주·문경 등지에서 많은 사람이 입도하면서 교세가 크게 중흥하였다.

그러나 천도교와 울진군의 관계는 전의철에서 최시형으로 이어진 후 중단되었고, 현재 울진지역에서 천도교의 활동은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2) 보천교(普天敎)

보천교는 고창 출신의 동학 접주였으며 증산교(대순진리회)도였던 차경석(車京錫)이 창시했다. 차경석은 증산교의 창시자 강일순(姜一淳)을 만난 뒤 열렬한 증산교도가 되었고, 강일순이 사망한 후, 1911년 선도교(仙道教)를 창립할 당시 교권을 장악하였다. 1922년 서울

종로에 세운 포교당에 ‘보천교’라는 명칭을 달았는데, 이때부터 ‘보천교’라는 이름으로 불리기 시작했다. 보천교는 1920년에 교단조직을 60방주로 재편하고 557,700명에 달하는 간부를 임명할 정도로 크게 성장하였다.

울진지역의 보천교는 1917년 차경석이 방주들을 모아 회의를 한 뒤 교세 확장으로 일제 탄압이 심해지자 고향을 떠나 다시 강원도와 경상도 지역으로 포교활동에 나섰다. 1918년 포교 활동 중 국권회복을 내걸고 전라북도, 제주도에서 일제와 무장투쟁할 것을 연설하였다. 이때 경상북도 영일군[현 포항시] 출신 김연일 등과 항일운동을 모의하였다. 또한 1919년 7월 차경석이 울진군 서면 전천동(前川洞)에서 60방주를 조직하면서, 울진지역은 초기 보천교의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지역이 되었다. 또한 조선총독부의 조선통치백서에 따르면 보천교도가 6백만에 이른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와 같은 보천교의 교세 확장은 1930년대까지 울진지역에서 왕성하게 교세를 확산한 것과 무관치 않다. 울진군지에 따르면 보천교도들은 상투차림에 큰 관탕(冠宕)을 착용했다고 한다. 당시 보천교에 관해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 후천개벽을 기본교리로 새로운 사회의 도래를 염원하는 것을 주된 교리체계로 삼았으며, 울진지역의 원남면 일대를 비롯한 전 지역에서 교세를 확산시켜 왔다고 전한다.

그러나 1936년 차경석이 죽고 일제의 ‘유사종교해산령’으로 인해 보천교는 해체되었다. 8·15해방 후 다시 교단이 조직되었지만 과거의 교세를 회복하지 못했고 신파와 구파로 분열되었다. 오늘날 울진지역에서는 과거에 왕성했던 보천교의 흔적조차 찾아보기 어렵다.

김병희

제3절 불교

1. 울진지역의 불교 전래

1) 울진군의 형세와 내력

울진군은 현재 경상북도의 동북단에 위치하고 있는데, 동쪽은 동해에 접하고, 서쪽은 봉화군과 영양군, 남쪽은 영덕군, 북쪽은 강원도 삼척군과 접하고 있다. 울진군은 2읍 8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울진군 10개 읍면의 위치를 보면, 내륙지인 금강송면과 온정면을 제외하고는 모두 동해안을 접하고 있다. 제일 북쪽에서부터 북면·죽변면·울진읍·근남면·매화면·기성면·온정면·평해읍·후포면이 위치하고 있다.